휴먼카인드: 감춰진 인간의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

뤼트허르 브레흐만

왜 호모 사피엔스만이 결국 살아남았는가?

유발 하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내어 결국 인간이 승자가 되었다.”

뤼트허르 브레흐만: 서로 따라하면서 빠르게 학습했던 호모 사피엔스의 ‘모방을 통한 사회적 학습능력’이 가장 중요한 승자 요인이다. 다른 동물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인간의 사회적 학습 능력은 대규모 집단으로 살면서 서로 협력하고 모방하면서 빠르게 공동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모방을 허용함으로써 집단이 함께 더 똑똑해졌다는 주장이다. 모두가 이기적이었다면 불가능한 결과다. 이렇게 인간 사회의 탄생이 이기성에 기반하지 않고 이타성에 기반했기 때문에 지구의 승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악한가, 아니면 맥락적으로 사악한가?

저자는 우리가 본성으로 가진 선함을 믿고, 예외적인 사건을 과장하는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더 나은 휴먼카인드가 된다고 주장한다.

프롤로그 인류 보편의 속성

인간에게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준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안톤 체호프

영국 대공습, Black Friday

사실 대공습에 대한 모든 설명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몇 개월동안 런던 사람들이 기이하게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국 사회는 많은 면에서 대공습으로 인해 강해졌다. 히틀러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대실패였다.

하지만 폭격을 가할수록 문명의 껍데기는 점점 더 두꺼워졌다. 얇은 막이 아니라 굳은 살이었던 것 같다.

1장 **새로운 현실주의:**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전쟁과 재난과 같은 위기의 순간,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까? 패닉에 빠져 이기심에 지배당할까? 침착하게 서로를 도우며 연대할까?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현실의 또 다른 덫이 된다.

당신은 어느 행성 사람인가

급진적인 아이디어: 대부분의 사람들 내심은 매우 고상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동물학자 프란스 드발, 껍데기 이론: 문명이란 아주 가벼운 도발에도 갈라져버리는 얄팍한 껍데기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진실이다. 우리 인간은 위기가 닥칠 때, 즉 폭탄이 떨어지거나 홍수가 났을 때 최선의 모습을 보여준다.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내가 받은 인상에 따르면 엘리트가 공황에 빠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두의 인간 본성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탓이다. 독재자와 전제군주, 주지사와 장군들은 모두 자신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자주 무력에 의존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이기심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하는 탓이다.**

리베카 솔닛, <이 페허를 응시하라>

플라시보와 노시보

플라시보 효과: <영국의학저널>은 요통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병에 대해 실제 외과 수술과 가짜 수술의 효과를 광범위하게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플라시보는 모든 사례의 4분의 3에서 도움이 되었고, 절반 정도는 실제 수술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

노시보 효과: 가짜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병을 생기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벨기에 콜라 사건: 과학자들은 이 나라의 다른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대중적 심인성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확신했다. 쉽게 말해서 병에 걸렸다고 상상했다는 것이다.

노시보 효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결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하는 일은 일어나게 된다.

만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만큼 세상을 만드는 커다란 힘을 가진 아이디어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이 책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설교집이 아니다. 우리는 복잡한 존재이다. **인간 본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한 증거이다. 이와 동시에 아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더욱 실재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껍데기 이론과 잔혹한 세계 증후군

1980년대 100여개 국가 대규모 여론조사인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프랑스, 독일,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를 포함한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인간이 나쁘다고 상상하는 것일까?

뉴스: 위험에 대한 오인, 불안, 기분 저하, 학습된 무기력, 타인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 그리고 감각 상실의 원인

잔혹한 세계 증후군: 증상은 냉소주의, 염세, 비관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이 세상을 개선하는 데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

30개국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

‘**당신은 세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또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현실은 정반대이다. 지난 몇 십년 동안 극심한 빈곤, 전쟁 희생자, 아동 사망률, 범죄, 기근, 어린이 노동,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함공기 추락 건수 등은 모두 급격히 감소하였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뉴스는 없다,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의 수가 어제 이후 13만 7000명 감소했다”

네덜란드의 사회학자팀의 연구

**이민이나 폭력이 감소하는 시기에 신문은 이 문제를 더 많이 보도한다는 사살이다.**

**“그러므로 뉴스와 현실은 서로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역상관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비관적인 뉴스에 취약한 것일까?

1. 부정편향: 우리의 관심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끌린다

2. 가용성 편향: 어떤 대상에 대해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흔하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뉴스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설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1990년대 경제학 교수 로버트 프랭크: 경제학을 더 오래 공부할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 되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원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하루밖에 되지 않은 유아도 예외일 수 없다.

새로운 현실주의의 요구

경고

1. 인간 본성에 대한 염세적인 주장을 하나 쳐낼 때마다 그 자리에는 2개가 생겨난다. 껍데기 이론은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좀비 같다.

2. 인간의 선함을 옹호하는 것은 존재하는 권력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3. 인간의 선함을 옹호한다는 것은 조롱의 폭풍을 뚫고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2장 **파리대왕**: 진실은 소설과 정반대였다

“인간은 마치 벌이 꿀을 만들 듯 악을 낳는다.” 극한 상황에서 야만인으로 전락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 소설 <파리대왕>은 20세기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소설 바깥에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놀랍게도 소설과 정반대의 현실이었다.

‘파리대왕’ 이야기

1960년대의 시대정신: 아우슈비츠는 예외였는가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나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가?

대장정의 시작

아타섬에서 발견된 소년들

나는 피터에게 <파리대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네 읽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는 일과는 완전히 달라요!”라며 웃었다.

아이들이 쌓아 올린 사회

1부 자연 상태의 인간

3장 **호모 퍼피**: 가장 우호적인 존재의 탄생

만일 더 영리한 여우를 원한다면 영리함을 선택하지 말라. 친화성을 선택하라.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특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초사회적 학습 기계로, 우리는 배우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놀기 위해 태어났다.

천재는 다섯 명 중 한 명만이 낚시를 배우고 그중 절반은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냈으며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방자들은 단지 0.1%만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만 99.9%는 다른 모방자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후속판에서 인간의 천성이 이기적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수정했으며, 그 이론은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다. 투쟁과 경쟁이 생명체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협동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물학과 1학년이라면 누구나 배우게 된다.

인간은 연대와 상호작용을 갈망하는 존재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갈망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유대를 갈망한다. 호모 퍼피가 큰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같은 갈망 때문이다.

4장 **사격을 거부하는 병사들**: 전쟁은 본능이 아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혐오하는 것은 다름 아닌 폭력이었다.

옥시토신은 우리를 더욱 친절하고 점잖으며 느긋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심지어 최악의 인간을 우호적인 강아지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2010년 암스테르담대학의 연구원들은 옥시토신의 효과가 자신의 그룹에만 한정되는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호르몬은 친구에 대한 애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한 혐오감도 증가시킬 수 있다. 옥시토신은 보편적 동포애를 촉진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편 먼저’라는 감정을 고취하는 것이다.

고결한 야만인을 찾아서

나폴리언 새그넌, <맹렬한 사람들> 살인자였던 남성들이 더 많은 아내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핏속에 폭력이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

생물학, 인류학, 고고학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인간은 친구들에게 친절할 수 있고 외부인에게는 냉혹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전쟁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이다. 다행히 핑커는 독자들을 안심시키며 우리는 ‘문명이라는 인공물’ 덕분에 고귀해졌다고 말한다. 농업, 글쓰기, 국가의 발명은 우리의 고약하고 야만적인 본성에 두꺼운 문명의 옷을 입히고 우리의 공격적인 본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완전히 장전된 충돌

그러나 마셜은 300명이 넘는 병사들로 이루어진 대대에서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36명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범하고 보통의 건강한 사람은 동료 남성을 죽이는 것에 대해 무의식적인 내면의 저항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지로는 생명을 빼앗지는 않을 것 이는 역사상의 모든 병사에게 적용된다.

최초의 인간과 전쟁의 증거

요컨데 보통의 선사시대 인간이 커다란 친구 집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고,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었다.

“전쟁의 기원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시작이 있었다.”

5장 **문명의 저주**: 권력자가 만들어낸 상상

정착지와 사유재산의 출현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가 99%를 억압하기 시작했고, 달변가는 지휘관에서 장군으로 그리고 족장에서 왕으로 등진했다. 자유, 평등, 형제애의 시대는 끝났다.

수렵-채집인의 사회

지도자는 지식이 더 풍부하거나 기술이 뛰어났거나 카리스마가 있었다. 즉 그들은 주어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성과에 기반한 불평등’이라고 부른다.

공격적인 성격은 번식의 기회가 적었고, 상냥한 성격은 후손이 더 많았다.

과학자들은 남녀평등이 호모 사피엔스를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다른 호미닌보다 우세하게 만들어준 핵심 장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성은 대부분 형제 및 남성 사촌과 어울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권위가 여성과 공유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갖는 경향이 있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친구가 많을수록 궁극적으로 더 똑똑해진다.

양육은 육아에서도 나타났다. 원시사회의 남성은 오늘날의 많은 아버지들보다 아이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양육은 부족 전체의 공동 책임이었다. 유아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었고 때로는 다른 여성이 모유를 먹이기도 했다.

지도자의 탄생

결정을 내리는 큰 지도자 없이는 큰 집단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다국적기업에는 왕이나 대통령, CEO가 필요하다. – 제러드 다이아몬드 –

수만 년 동안 우리는 잘난 체하는 사람을 모두 쓰러뜨리는 효율적인 방법, 즉 유머, 비웃음, 뒷담화 등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뒤에서 활을 쏘면 된다. 그러다 통치자들은 갑자기 자리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간신히 성공했다. 왜?

정주의 사유재산의 출현

“하나의 땅덩어리에 울타리를 친 뒤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기로 결심한 최초의 인물.”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관행이 생겼다는 것은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의 소유물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상속이 시작되자 빈부격차가 벌어졌다.

전쟁이 시작된 이유

1. 우리에게는 땅을 비롯해 지켜야 할 소유물이 생겼다

2. 정착민의 삶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유목시대의 종말과 국가의 탄생

합법적인 자손이라는 문제 이외에도 성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다. 하렘 전체를 손안에 넣고 있던 왕과 황제는 섹스 파트너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부터 혼전 성관계는 죄악이라는 생각이 나타났고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명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문명과 국가의 본질

돈의 발명, 글쓰기의 발전, 법적 제도의 탄생 등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이정표’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것들은 압제의 도구에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동전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주조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원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진정한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중국의 만리장성일 것이다. 이 세계의 불가사의는 위험한 ‘야만인’을 차단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사실상 만리장성은 중국제국을 새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으로 만들었다.

“야만적인 삶을 맛본 유럽인은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문명은 재앙인가, 숙명인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었다.”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으며 생물 종들은 멸종하고 있고, 현재 시급한 문제는 문명화된 생활양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이다.

6장 **이스터섬의 수수께끼**: 잘못된 인용과 확대재생산

문명으로부터 고립되어 내전과 살육으로 점철된 이스터섬의 신화는 지구 문명에 임박한 파멸에 대한 묵시록처럼 비유되곤 한다. 그러나 이 섬에는 전쟁과 기아, 식인이 존재한 적이 없다. 잘못된 연구자료의 인용과 확대재생산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스터섬의 수수께기

이스터섬의 이야기는 인류에 대한 냉소적인 견해를 입증하는 듯하다. 지구가 계속해서 온난화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하고 오염시킴에 따라 이스터섬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로 부각되고 있다. 호모 퍼피와 고결한 야만인은 잊어버려라.

내전과 학살의 고고학적 증거

이는 과대망상적인 통치자가 꿈꾸난 명예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의식이었다.

침입자들과 잘못된 신화의 탄생

문명에 대한 자기충족적 예언

전쟁도 기근도 다른 사람을 잡아먹은 일도 없었다. 삼림 벌채는 땅을 황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옥하게 만들었다. 1680년경에는 대량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세기 후인 1860년경까지 진정한 쇠퇴는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섬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쇠퇴하는 문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명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것이다.

너무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인류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한다. 나의 두려움은 그들의 냉소주의가 자기충족적 예언, 즉 지구 기온이 변함없이 오르는 동안 우리를 절망으로 마비시키는 노시보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해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스터섬이 이를 증명한다. 섬 주민들은 마지막 나무가 사라졌을 때 수확량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로 농업을 다시 일구었다. 이스터섬의 실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완이 매우 좋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임박한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희망의 원천이다.

2부 아우슈비츠 이후

7장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의 진실**: 그곳에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빌어먹을 내 속이 불타고 있다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비인간적인 환경에 놓인 수감자들은 굴복했고 교도관들은 그 권력을 누렸다. “평범하고 선한 일반인도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면 어김없이 괴물이 된다” <루시퍼 이펙트>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루시퍼 이펙트

1971년 8월 15일 평범한 학생들이 괴물로 변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복수극, 로버스 동굴 공원 실험

아이들은 속지 않았다

여기서 증명된 것이 있다면 일단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나면 서로 적대시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조작된 인간 본성 실험

수감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석방되었다. 그래서 코피는 문제가 있는 척 연기를 하기로 작정했다. 먼저 복통이 있는 척 했고, 효과가 없자 신경쇠약증을 시도했다.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의 재현

선한 사람들을 악한 곳에 가두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그다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8장 **스탠리 밀그램과 전기충격 실험**: 의도된 결말

1960년대, 제 2차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라는 오욕의 역사는 인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당시 수많은 사회심리학 실험들이 이 질문에 응답하고자 수행되었다. 문제는 그것이 정해진 답을 의도한 실험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타인에게 어디까지 고통을 가할 수 있나

연구 참가자의 65%가 극단으로 치달아서 450볼트에 이를 때까지 계속 충격을 가했다. 보아하니 이들은 평범한 아빠이자 친구, 남편이었지만 그들 3분의 2는 무작위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고자 했다. 왜? 누군가가 그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악의 평범성: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효과적인 연극

핵심 질문은 피험자들이 자신들이 실제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믿었는지의 여부이다. 학습자에게 실제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믿은 피험자는 56%에 불과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밀그래의 연구 보조원 중 한 명이 끝내 발표하지 않는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만두었다고 한다.

선으로 위장된 악을 따르다.

밀그램의 편향된 관점, 괴롭히는 연구 보조원, 피험자들 사이의 회의론을 고려하더라도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나치게 많았다. 너무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충격이 진짜라고 믿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한도의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끔찍하게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째서?

밀그램의 충격 기계에서 진행된 수백 번의 세션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보면 회색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남자가 더욱 위압적으로 나올수록 피험자들의 불복종은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호모 퍼피는 권위자의 명령을 생각 없이 따르지 않았다. 우리는 우두머리 행세를 노골적으로 혐오한다.

사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커다란 고통도 참아낸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데 온 힘을 다한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강하게 압박하고 찌르고 재촉하고 미끼를 던지고 조작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실제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악은 표면을 들추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악을 끌어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악을 위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렌트에 관한 오해

아이히만은 생각 없는 관료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는 광신자였다. 그는 무관심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 밀그램의 실험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다.

즉 밀그램의 자원봉사자들이 멈춰서 생각하지 않고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던 것처럼 홀로코스트는 갑자기 로봇으로 변한 인간의 작업이 아니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다고 믿었다. 아우슈비츠는 전압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악이 더 설득력 있게 선으로 통용되는 길고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밀그램과 달리 아렌트는 나치가 우리 각자의 내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한나 아렌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품위 있다고 믿는 보기 드문 철학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사랑과 우정에 대한 욕구가 증오와 폭력에 대한 어떤 성향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의 길을 택할 때 우리는 미덕처럼 보이는 거짓말과 진부한 경구 뒤에 숨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낀다.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의 죄 많은 본성을 믿는 것은 위로가 된다. 그것은 일종의 사면을 제공한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이 나쁘다면 참여와 저항은 노력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죄 많은 본성에 대한 믿음은 또한 악의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증오나 이기심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아, 그건 그냥 인간의 본성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

실험을 중단한 피험자의 세 가지 전술

1. 피해자와 대화한다.

2. 회색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남자에게 책임을 상기시킨다.

3. 계속할 것을 반복적으로 거부한다.

밀그램의 영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의심스러운 권위에 저항하는 역량이며, 이 역량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저항의 전염성

덴마크의 예외는 시민사회에서 인본주의를 집결하는 것이 이론적인 가능성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9장 **캐서린 제노비스의 죽음**: 언론이 만든 ‘방관자 효과’

1964년 3월 새벽 3시 뉴욕에서 캐서린 제노비스가 아파트 현관에서 칼이 찔려 사망했다.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라는 한 목격자의 증언에 38명의 목격자들은 38명의 방관자로 전락했다. 여기까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전부다.

대도시에서 벌어진 비극

I didn’t want to get involved

방관자 효과

키티 제노비스는 비명을 지르며 이웃 사람 모두를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 반대로 이웃 사람 모두를 깨웠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만약 키티가 인적이 드문 공원길에서 공격을 받았고 목격자가 한 명뿐이었다면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 사례는 대도시 생활의 위험한 익명성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현대의 우화이다.

목격자의 즉각적 개입

방관자 효과의 메타 분석 결과

1. 방관자 효과가 존재한다.

2. 생명이 위험한 비상상황에서 목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역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다. “추가적인 목격자들이 있으면 도움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한다”

90%의 사례에서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여기서 알 수 있다. 90%

키티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38명의 목격자는 어떻게 된 것일까?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실패한 것은 평범한 뉴요커가 아니라 당국자들이었다. 키티는 혼자가 아닌 친구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목격자의 존재는 과학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대도시, 지하철, 붐비는 거리에서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

심리학과 1학년뿐만 아니라 언론인 지망생도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첫째,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얼마나 자주 엉망이 되는가. 둘째, 기자들이 선정적인 이야기를 팔기 위해 얼마나 교묘하게 자판을 두드리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때는 정확히 위급한 상황에서라는 점이다.

3부 선한 본성의 오작동

나는 인간의 행동을 비웃거나 이를 보고 울거나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비뤼흐 스피노자-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조화’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현대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가장 친숙한 예시는 비만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먹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의 DNA는 우리가 아직 밀림 속에서 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사시대에는 열매가 가득 맺힌 과일 나무를 우연히 발견할 때마다 배불리 먹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몸에 지방층을 더 쌓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자기 보존 전략이었다.

사람들이 부조화를 인정하고 인류에 대해 새롭고 현실적인 관점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사회를 갖게 될까?

10장 **공감의 맹목성**: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격은 잔인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용기와 충성심, 헌신과 연대의식이 때로는 전쟁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적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감은 낮아지고 공격은 더 잔인해지는 법. 그리고 뉴스는 이러한 공감을 한계로 몰아붙이는 자극제가 된다.

전우애와 이데올로기

독일군은 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싸웠을까?

최고의 전투 기량을 보이는 병사들은 자신들이 역사 속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자신들의 세계관이 유일하게 타당하다고 확고히 믿는 자들일 것이다.

평균적인 독일 국방군 병사는 평균적인 연합군 병사보다 50% 더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군은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군대가 신기에 가까운 전투를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단순했다. 바로 ‘전우애’였다. 수백 명의 제빵사, 정육점 주인, 교사, 재단사, 그리고 연합군의 진격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한 모든 독일인들은 서로를 위해 무기를 들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동료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한 독일군 포로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치즘은 전선에서 10마일 떨어진 후방에서 시작된다.” 반면 전우애는 모든 엄폐호와 참호안 바로 그곳에 있었다.

어떻게 인류의 선한 속성이 이 괴물 같은 독일군에게 동기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움직인 동력 또한 용기와 충성심, 헌신과 연대의식 이었음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을까?

모리스와 그의 동료들은 전술, 훈련, 이념 모두 군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군대의 강함을 결정하는 척도는 같은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 사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한지의 여부이다. 동지애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무기인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경우를 거듭 접했다.

‘친절한’ 테러리스트

제 2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특성인 우정, 충성, 결속이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을 저지르게 고무시킨 영웅적 투쟁이었다.

전문가들은 테러리스트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매우 쉽게 조종당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이나 외부의 권위에 쉽게 흔들린다. 또한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눈에 옳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싶어 한다.

차이에 민감한 아이들의 본성

수세기 동안 이기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추론한 끝에 우리에게는 타고난 도덕적 나침반이 있으며, 호모 퍼피는 빈 서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신중하게 선택된 증거가 나왔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선을 선호한다. 이는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한 것은 아기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좋은) 사람보다는 실제로 비열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울해지지 않는가? 말하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다. 아기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아기들이 낯선 얼굴, 알 수 없는 냄새, 외국어, 이상한 억양 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십 가지 실험을 실시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타고난 외국인 혐오자인 듯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언론과 언론인에게서 나온다. 문제는 이들이 썩은 사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자신과 다른 색 셔츠를 입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인식이 “특정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반적으로 왜곡되었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충격적”이라고 논평했다.

공감의 메커니즘

볼룸 교수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감은 절망적으로 제한된 기술이라고 말한다. 공감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즉 우리가 냄새를 맡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더 나은 세상은 더 많은 공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덜 용서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와 더 많이 동일시할수록 적에 대해 더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소수에게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적의 관점은 보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폭력에 대한 혐오감

어느 시대에서나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멀리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쏘는 것이었다.

군대는 장거리 무기 외에서 적과의 심리적 거리를 넓히는 수단을 추구한다. 만약 상대방을 해충으로 묘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들을 비인간화할 수 있다면 상대를 정말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하기가 더 쉬워진다. 또한 병사들을 마약에 취하게 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공감 능력과 폭력에 대한 반감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다.

11장 **권력이 부패하는 방식**: 후천적 반사회화

“누군가가 호의를 베푼다면 속지 말라. 그것은 가짜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지도자와 CEO를 꿈꾸는 이들의 필독서다. 호모 퍼피가 우호적인 존재라면 왜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간과 기회주의자, 나르시스트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가?

마키아벨리즘과 후천적 소시오패스

켈트너의 발견에 따르면 권좌에 오른 것은 가장 친절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친근한 자의 생존이다.

또한 겔트너는 사람들이 이미 권력을 갖게 된 뒤에 받게 되는 영향도 연구했다.

사실 자동차가 비쌀수록 도로상의 매너는 더 거칠어진다.

‘후천적 소시오패스’

알고 보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뇌 손상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보통사람보다 더욱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무모하고 오만하며 무례하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으며, 그들의 관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은 더 뻔뻔스럽고 종종 영장류 사이에서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얼굴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권력의 영향 중 하나는 타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권력을 갖지 못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감도 훨씬 떨어진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를 주저하고 집단에서 스스로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들며 자신의 지능을 과소평가한다.

사람들을 어리석은 것처럼 대하면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권력의 본질적 속성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을 선택해 우리를 이끌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상에 이르면 권력은 종종 그들의 가슴이 아닌 머리로 곧장 들어가버린다. 그 후 그를 몰아내는 일에 행운이 따르기를.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의 동류 의식을 상상하는 법을 배웠다. 종교, 국가, 기업, 국민은 모두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 지도자와 우리 자신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만 존재한다.

돈은 허구일 수 있지만 매우 실제적인 폭력의 위협이라는 강제력을 갖는다.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루소는 이미 이러한 형태의 정부가 더 정확하게는 ‘선출된 귀족제’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권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누가 우리를 지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이 애초에 사회의 평민을 배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도 모든 시민은 누구나 공직에 출마할 수 있지만 기부자 및 로비스트들로 구성된 귀족적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힘들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왕조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케네디 가문, 클린턴 가문, 부시 가문을 생각해보라.

계층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마키아벨리안은 한 발 앞서 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궁극적인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는 뻔뻔함이다.

수천 년 동안 수치심은 지도자를 길들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장치일 수 있다. 수치심은 규칙이나 규정, 비난이나 강압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뻔뻔한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대담한 행동은 대중매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대사회에서 보상으로 돌아온다. 뉴스는 비정상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을 집중 조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가장 친절하고 공감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인 사람이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가장 뻔뻔한 자가 살아남는다.

12장 **계몽주의의 함정**: 비관주의의 자기충족적 예언

데이비드 흄은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악한 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격언에 불과하다. 물론 어떤 격언이 실제로는 거짓이면서 정치에서는 참이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말이다”

호모 퍼피의 역설

문명이 시작되면서 호모 퍼피의 가장 추악한 부분이 표면화되었다. 동료애에 의해 고취되고 냉소적인 권력자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장 끔찍한 직을 저지른다.

호모 퍼피는 자연 서식자에서 억지로 떼어내진 동물이다.

계몽주의의 모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무언가에 믿음을 두었다면 그것은 합리적 사고의 힘에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타고난 이기심을 고려해 지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우리의 어두운 본능 위에 문명이라는 층을 덧칠할 수 있다고 믿었다. 혹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나쁜 자질을 동원해 공동선에 봉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옹호한 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었다. 이를 ‘사적인 악, 공공의 이익’이라는 모토 아래 널리 퍼뜨렸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기심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풀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이나 잡화 값을 지불할 때 우리는 카트에 담긴 물건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선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보살피는 데 따른 행동이다.

만일 정부의 최고 기관에 있는 권력자들이 서로를 견제한다면 미국인들은 부패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화합하며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흄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속에 노시보라는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4부 새로운 현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13장 **내재적 동기부여의 힘**: 경제적 보상의 한계

14장 **놀이하는 인간**: 우리 안의 무한한 회복탄력성

15장 **이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일곱 가지 재앙을 넘어

5부 비대칭적인 전략

16장 **테러리스트와 차 한잔**: 가장 저렴하고 현실적인 방법

17장 **혐오와 불평등, 편견을 넘어**: 접촉의 위력

‘

18장 **참호에서 나온 병사들**: 희망의 전염성

에필로그 삶에서 지켜야 할 열 가지 규칙